



광주일보·전남지역암센터 공동기획

# 암을 이기자!

## 〈4〉 갑상선암 증상과 예방 치료

# 목에 혹 만져지면 의심... 치료 어렵지 않다



〈강효철 교수〉

갑상선(갑상샘)암은 최근 1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암 중 하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치료를 받은 암 환자 18만 8천 206명 중 갑상선암 환자는 2만 4천 295명으로 2006년보다 32.3%(5천 934명) 늘어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35세 미만 여성에게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암으로 2년 전부터는 국내 여성암 1위를 차지했다.

### 암세포 진행 속도 더뎠... 생존율 90% 이상 갑상선 질환자 요오드 섭취 피하는게 좋아

◇원인과 종류=갑상선은 목 아랫부분에 위치해 있는 나비모양의 작은 기관이다.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요오드를 호르몬으로 바꾸는 기능을 한다. 이 호르몬은 인체 기관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갑상선암은 크게 여포암과 유두암, 수질암, 미분화암 등 4가지로 나뉜다. 갑상선암의 90% 이상은 암세포의 진행속도가 느린 갑상선 유두암종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이다.

해산물에 포함된 요오드 섭취가 풍부한 국내에서는 서양에 비해 여포암의 발생빈도가 낮다. 수질암은 유전성 질환과 연관돼 발생할 수 있고 하시모토 갑상선염을 앓고 있는 환자는 림프종이 발생할 수 있다. 매우 드물지만 미분화암은 인체에서 발생하는 가장 무서운 암으로 어떤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여성에게 빈발하는 갑상선암이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명확하지는 않다. 유두암의 병인으로 가장 명확한 것

은 방사선 노출이다.

원폭후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그리고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인근 지역의 갑상선암 급증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다양한 유전자 이상이 갑상선암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갑상선은 혹(결절)이 흔히 발생하는 장기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빈도는 증가한다. 60세 이상의 인구군을 대상으로 초음파검사를 시행하면 약 50%에서 갑상선 결절을 발견할 수 있고 이 결절의 5%는 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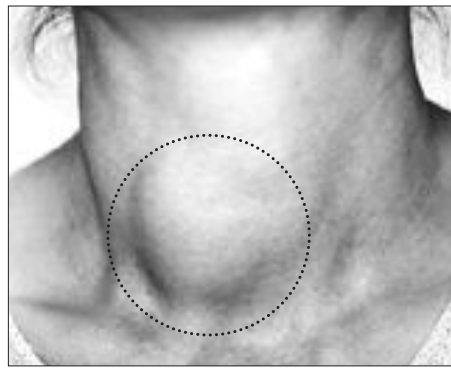
◇증상과 진단=갑상선암의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목에서 혹이 만져질 때이다.

또 쉰 소리와 경부압박감, 삼킬 때 통증 등을 들 수 있으나 최근에는 검진시 발견된 작은 갑상선 결절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갑상선 결절 중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초음파와 초음파유도 미세침흡인술이다. 매우 작은 주사침을 이용하므로 심한 통증 없이 외래에서 시행할 수 있다. 95% 이상의 정



갑상선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미세한 주사침을 이용해 결절부위의 조직을 검사하는 미세침흡인술.



갑상선 결절

확성을 가진 검사로 특징적인 세포학적 소견을 보이는 갑상선 유두암종에서는 정확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일부 여포암에서는 미세침흡인술만으로 진단이 불가능해 수술적 절제를 통해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

◇치료와 수술=갑상선암의 치료는 수술,

방사선 요오드 치료 그리고 갑상선 억제요법을 들 수 있다. 갑상선 주위에는 기도과 식도, 부갑상선, 혈관, 신경과 같은 매우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물들이 있어 숙련된 전문의에 의한 수술이 요구된다. 암의 재발위험이 큰 환자들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시행한다. 고용량 치료시에는 안전을 위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수술 후 모든 환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이는 호르몬 보충과 암의 재발 방지가 목적이자. 갑상선 유두암종은 보통 진행속도가 느린 유순한 암이지만 일부에서는 초기에 매우 공격적인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취해야 한다. 갑상선암 세포는 방사선 요오드를 섭취하는 특성이 있어 원격전이도 있더라도 요오드를 이용해 암세포를 추적, 파괴할 수 있다.

◇예방=해산물에 많이 들어있는 요오드의 지나친 섭취가 갑상선암을 증가시켰다는 이론도 있으나 근거가 확실하지는 않다. 역학적으로 명확한 것은 요오드 섭취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경과가 더 양호한 갑상선 유두암의 비율이 소포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식습관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갑상선 질환 병력을 가진 사람은 다시마탕 등 너무 많은 요오드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방사선 노출과 유전적 소인 등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위험인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다면 적극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강효철 내분비내과내과 교수〉  
/정리=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 광주 동아병원 사랑의 쌀 전달

광주 동아병원(대표이사장 정재훈) 사랑모아봉사단은 추석을 맞아 비인가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20여 곳을 방문하고,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 화순전남대병원 '국악 한마당'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범희승)이 오는 17일 병원 내에서 '가을맞이 국악 한마당'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에는 전주세종국악예술단 안선희 단장과 단원들이 출연해 부채춤, 선녀춤, 기방무 등의 멋진 춤사위와 사랑가, 춘향가 등의 관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매달 셋째주 수요일 정기 문화공연을 열어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치료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 당뇨병 약으로 체중 줄인다?

#### 치료제 프람린티드... 다이어트하는 사람 효과 촉진

당뇨병 치료제인 프람린티드(pramlintide)가 당뇨병 환자 아닌 사람들의 체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약을 생산·판매하는 에밀린 제약회사 연구원인 크리스천 와이어 박사는 프람린티드가 당뇨병 환자가 아니면서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체중감소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와이어 박사는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려는 중년 남녀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게는 매일 2-3차례 프람린티드를 투여단위를 달리해 (120, 240, 360μg) 4개월 동안 복용하게 하고 나머지 그룹에게는 위약을 줬다.

그 결과 프람린티드 그룹은 체중이 3.8-6.1kg 빠진 데 비해 대조군은 평균 2.8kg 줄어드는 데 그쳤다고 와이어 박사는 말했다.

이 실험을 12개월까지 연장한 결과 프람린티드 그룹은 줄여둔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계속 체중이 빠진 반면 대조군은 오히려 실험 전 원래의 체중으로 되돌아갔다. /연합뉴스

## “이 제대로 닦으면 심장병 예방”

불결한 구강위생 상태가 심장병과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몇 가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브리스톨대 하워드 쟁킨스 박사는 최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일반미생물학회에서 잇몸관리 소홀이 흡연, 비만,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함께 심장병의 주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박테리아 감염이 심장병의 치명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아무리 낯선하고 건강한 사람도 구강 위생상태가 나쁘면 심장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 안에는 700만개의 다른 박테리아가 서식하며 부실한 칫솔질은 오히려 박테리아들이 번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연구에 따르면 일부 박테리아는 건강에 필수적이지만 어떤 박테리아는 심장병과 뇌졸중을 유발하는 동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더블린의 로열 콜리지 의과대 스티브 케리건 박사는 “구강은 인체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라며 “잇몸에 상처난 곳을 통해 박테리아가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혈관으로 들어간 박테리아는 혈소관에 부착, 응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혈액이 원활하게 심장으로 흐를 수 없게 된다.

케리건 박사는 이 과정에서 혈소관이 응집, 면역체계 세포와 항체로부터 박테리아를 보호하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졸중보다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입 안 박테리아 감염이 심장병 요인

#### 부실한 칫솔질 박테리아 번식 부추겨

환경, 뉴질랜드에서도 열악한 구강 위생상태가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타고대 연구팀은 구강 박테리아가 면역체계를 혼란시켜 백혈구가 동맥 조직을 생성하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세계 사망 원인 1순위의 심장 질환으로 매년 1천70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CBS 창립 47주년 기념

소강석 목사와 함께하는

# 아름다운가을동행

-광주시민 복음화 대성회-

가을로 가는 길은 순례의 길

9월 29일 (일) 오후 6시

장소: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 광주 CBS 기독교방송

후원: 광주시 기독교 교단협의회, 광주 성서대, 안동교회

문의: 010-9700-1111